

자양동 일대 49층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재개발사업 실통기획 확정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가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곳은 서측으로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다.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곳이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미래도시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LH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승소

수도시설 설치 지자체 부과권 인정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간 이어온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과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부과 권한이 명확히 인정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

에서 법원이 LH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인천시가 패소했다. 이에 인천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구역 전체의 분담금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설치행위는 도시정비법상 고유의 의무이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숭실대-美 애리조나주립대, 연구협력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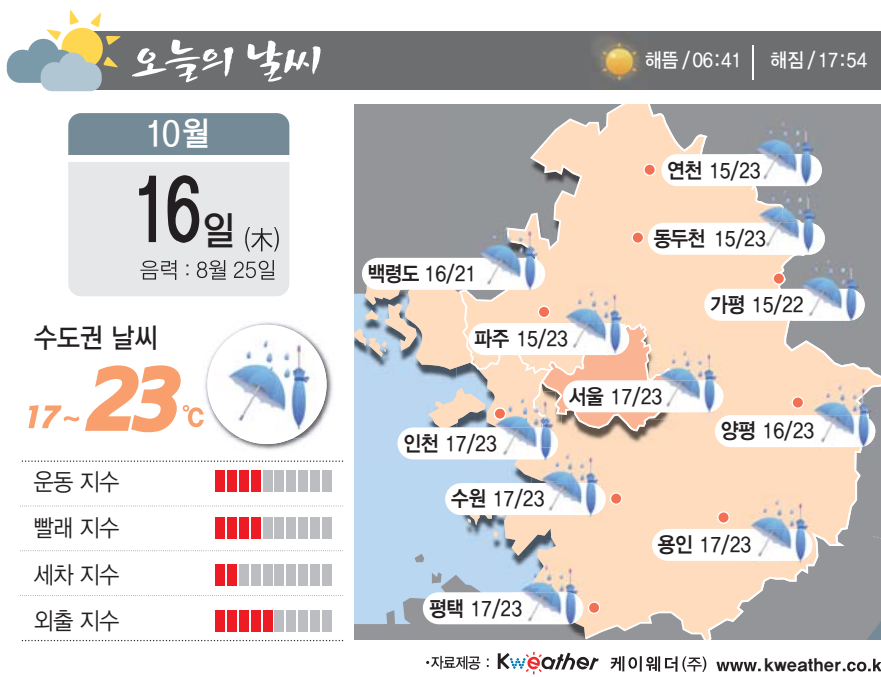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4일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이하 ASU)와 교육·연구·산학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원·학생 교류 ▲공동 심포지엄·워크숍 개최 ▲공동 교육과정·콘텐츠 공유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개별 사업은 별도로 세

부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숭실대는 모든 학문에 AI를 접목하는 'AI+X, X+AI' 전략으로 교육·연구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최초 'AI대학'을 신설해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의 무상 접근권을 제공해 학습·연구 환경을 고도화했다.

/이현진 기자



학생·청년위한 진로캠퍼스 열고 AI 코치로 대학 합격 가능성 예측

서울런 3.0 업그레이드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이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취업 지원까지 확대된 '서울런 3.0'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시는 14일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AI 시스템 전면 도입, 진로·취업 콘텐츠 확장, 학습 기반 강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누적 이용자가 3만6000명에 달한다.

◆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도 지원

서울시는 기존 입시 중심 지원을 넘어 진로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초·중·고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로봇엔지니어·바이오·뷰티·항공 등 실제 직업과 유망산업이 연계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립대·명지전문대 등 대학과 청소년특화시설(미래진로센터·미디어센터 등),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15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과정은 초·중·고생 적성 찾기(로봇·드론 등), 중·고생 진로탐색(코딩·AI·음악콘텐츠 등), 고·고등 진로심화(뷰티·미디어 등), 고·고등 이상 취업연계(항공승무원·반도체 등)를 포함 총 4개 단계로 이뤄진다.

서울 소재 대학(국민대)과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운영된다.

◆ 생성형AI 플랫폼 서비스 시행

2026학년도부터는 'AI 진로·진학 코치'를 통해 수시·정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학생부 평가 가이드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15일 오전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진로·취업 콘텐츠 확장, 인공지능(AI) 도입, 학습 기반 강화,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런 3.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서울런 3.0 추진계획 발표
로봇엔지니어·바이오·뷰티 등
15개 기관서 '진로캠퍼스' 운영

'서울형 영어학습모델' 개발로
초·중·고 1~2학년 공교육 공백 메워

이와 함께 서울런 학습시 영어 단어장·유사 시험문제 제작, AI 질의·응답, 이미지·영상 생성 등 자동화된 학습 보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제미니(Gemini) 등 '생성형 AI'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클래스101 등과 협력해 초·중·고생대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실습을 돕는 'AI 리터러시 전문강좌' 6000여 개 등 AI 스킬 업을 위한 학습콘텐츠도 제공한다.

중·고교생 서울런 회원 60명을 선발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진로·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AI 핵심 인재 양성 사업단' 운영에도 들어간다. 한양대 등 대학·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한 실습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첨단과학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

◆ 지원 대상 12만→17만 명 확대

서울시는 초·중·고 1~2학년을 위한 '서울형 영어학습모델'을 개발해 공교육 영어 공백을 메운다.

우선 공교육 영어 학습 공백이 있는 초·중·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 단계와 국제 언어 기준(CEFR)·국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내달부터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들어간다.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1~2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과 코칭을 병행, 학습 전·후 학습효과와 평가를 통해 연령 및 수준별 영어 학습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울런 학습 공간은 오프라인으로 확장된다. 서울시민대학·50플러스캠퍼스·사이버대학 등 서울 시내 30여 곳을 활용해 대규모 특강, 진로교육,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권 대학 지원율 18.8% '5년래 최저'

수도권 학생, 충청·강원권 비율 ↑
제주 제외 비수도권 지원율 상승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지원 비율은 전년 대비 5.0%p 줄어든 18.8%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 대학 현황(총 26만8821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권 대학 지원 비율은 2022학년

도 22.2%,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8.8%로 급감했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 수험생들조차 서울권 대학 지원을 줄이면서,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권 대신 충청·강원권 대학을 택한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지방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대

학을 선택한 비율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 합격 안정성,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수시에서는 수험생들이 수도권 경쟁률 부담을 피하고 지역 대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이 같은 경향은 정시모집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중국, EU와도 대립... "히토류·기술이전 관련 무역분쟁 조짐"
▲ 트럼프 "中, 의도적으로 美 대두 안 사... 식용유 등 교역 단절 검토"
/사진 뉴스1

▲ 마다가스카르 Z세대, 대통령 축출... 인니, 동티모르, 필리핀, 케냐도 들쭉
▲ 캄보디아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4명, 지난 14일 국적기 통해 돌아왔다

▲ 일본 언론 "中, 김정은 9월 방중 때 한국에 사전 통지 배려"
▲ 캄보디아 구금 피해자, "전기 충격기로 괴롭히고 쇠 파이프 때렸다"